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독교경영인의 책임

김 대 식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요 지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직한 경영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정보의 제공으로 시작될 수 있다. 2011년부터 한국에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은 기존의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자산 등의 현재가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 하여 재무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은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독교경영인들이 어떻게 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논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경영인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적용하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정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달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회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어 사회와 국가의 경제활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머릿말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정보

엔론, SK글로벌 등의 회계부정 사건과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기업윤리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나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에 관하여는 미국과 유럽 선진 국가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195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Carroll(1999)의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의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하면서 경제적, 법적 책임 외에 윤리적, 재량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중 경영성과의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량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의 강조와 더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인지에 대하여는 연구는 거의 없다. 분식회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분식회계를 하지 말자고 강조하는데 이는 회계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업경영을 가장 정확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회계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도 법적인 책임 외에 윤리적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경영인은 회계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올바른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완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록 보고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원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1972년에 미국회계기준 제정을 위해 발족된 재무회계심의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적용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한국회계기준(K-GAAP)’을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와 글로벌화가 우리의 경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발달과 함께 각국의 회계원리와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Norvark 협약을 발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통일화를 촉진시켰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Accounting Principle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SAB)는 그 전신이 1973년에 결성되었고 현재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16명의 상임기준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005년에 EU 28개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폐기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홍콩, 중국도 이미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미국은 2009년부터 자국에 상장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이 공동 수용되면 국적에 관계없이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하고 각 기업이 생산하는 회계정보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법적으로 적용만 하면 기업의 법적인 책임을 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국제회계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기독교 영인은 어떻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을 수동적인 자세로 적용만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법적인 책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2 연구문제

정직한 경영을 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회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교회나 선교단체에게 적용할 회계원리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김휴섭(2002), 진현(2002), 최현동 외(1998))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차이로 직접 적용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분야는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정직한 회계정보에 관한 윤리적인 연구이다(김휴섭(2002), 장지인 외(2002), 조준현 외(2004), 최재덕(1998)). 그러나 기업회계원리와 기준을 성경적 관점에서의 검토하여 크리스찬 기업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김대식(2009)은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계원리에 관하여 논증하였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경영자의 판단이 회계정보를 기록 보고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크리스찬 경영인들은 국제회계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업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2011년부터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을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존의 한국기업회계기준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크리스찬 경영인들은 이 국제회계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하는지 추론하려고 시도하였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회계원리에 따라 기록된 회계정보와 회계보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도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1.3 연구방법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에 논증은 기독교 경영인들에게는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므로 이 논문의 논증을 위한 당연한 가정으로 받아들였다. 국제회계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평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고찰이 필요하므로,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논리적인 비교와 추론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계원리를 추론하기 위한 두 가지 성경적인 전제를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두 가지 성경적 전제 위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가정 및 요소들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를 검토하고, 4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기독교 경영인들이 어떤 자세로 적용해야 하나님과 그의 통치 하에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논하였다.

2. 회계기준에 관한 성경적 전제

회계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회사에 투자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투자자라는 것과 둘째는 기업의 경영자는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투자금을 맡아 경영하는 대리인인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경영윤리와 회계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2.1 투자자이신 하나님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고 생각하며, 물질에 대한 탐심, 이기심, 욕심 같은 것들을 정죄하면서 돈을 불의의 재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허버트 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중성이다. 그것은 죄 있는 인간이 때 묻은 손을 그 위에 얹을 때와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만 더러운 것이 된다. 돈은 더러운 물건도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과 왕국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¹⁾ 요한 웨슬리도 돈에 유사한 철학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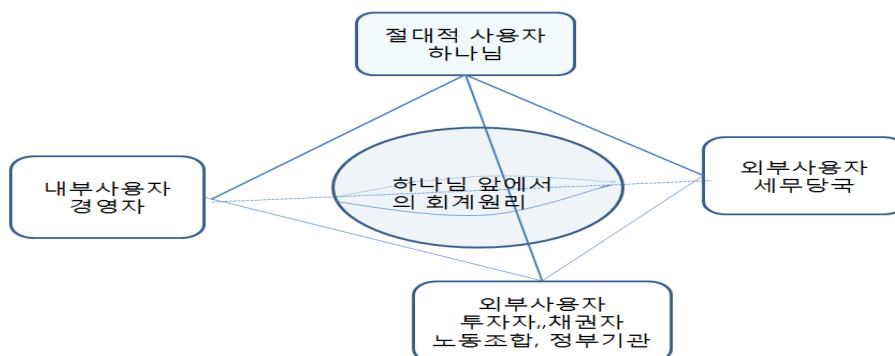
1) J. Herbert Kane, "돈에 대한 신뢰를 타파하자," 『월간 선교 21』, 1999년 4-5월, 53.

“할 수 있는 대로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모으라. 할 수 있는 대로 주라.”²⁾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돈의 가치가 달려 있는 것이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 돈이 인간이 자신이 수고하여 벌었으므로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사회의 이기적인 소유관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관리하도록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인이요, 만물의 관리자로 삼으신 것이다(창세기 1장 28절).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관리하고 손질할 책임을 맡은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오랜 후에 돌아와 각자의 사업실적에 관한 회계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기업회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다. 각 기업의 투자자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투자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크리스찬은 모든 회계정보의 기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록되어지고 보고 되어야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내부사용자와 외부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회계정보를 기록한다. 크리스찬에게는 이들 사용자 외에 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부사용자 외부사용자 보다 더 위에 계신 절대적 사용자로 계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우리에게 재물을 빌려주신 채권자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직접 투자하신 투자자이시며, 회계보고를 받으시고 경영성과를 평가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주주이시며 인사권을 쥐고 계시는 최고권위자이시며 회계정보의 최종사용자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다. <그림 1>은 하나님이 회계정보의 절대적 사용자라는 기독교 신앙이 포함되었을 때의 다른 회계정보 이용자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내부사용자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관리회계가 발전해 왔으며, 외부사용자와의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재무회계가, 세무당국을 위해서는 세무회계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며 회계정보의 절대적 사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회계기준도 회계학 이론도 개발되지 않고, 다만 경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실제 순이익을 추론하여 그에 대한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시고 경영자는 그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이라면 그에 맞는 회계기준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 회계정보 사용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2) 김영남, 『도대체 뭘 하지?』, 죠이 선교회 출판부, 2000년,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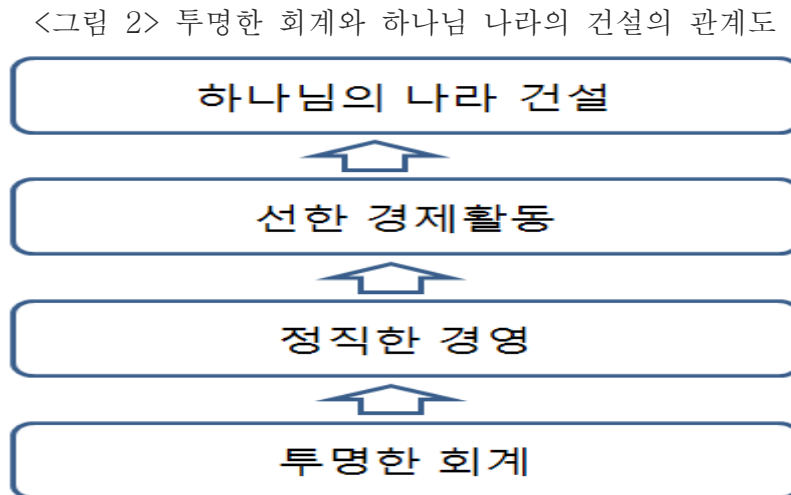
2.2 정직한 경영

하나님이 100% 투자자이시며 기업경영의 최고권위자라고 고백하는 기독교경영인들은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영을 해야 한다(빌립보서 2장 12절).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소비자, 주주, 종업원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경영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단 마음, 즉 한 마음으로 할 것이며(에베소서 6장 5-8절), 겉으로는 주인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외형적으로는 주주, 종업원, 소비자 중시의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주주를 속이는 불투명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경영과 회계 모두 주께 하듯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정직한 경영은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한 회계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들이 기록 분석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터 드러커는 “Start with what is right rather than what is acceptable” 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허용된 회계기준만 잘 지키면 투명한 경영, 정직한 회계에 충분한 조건이 성립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로 사업을 하는데 회계기준을 합법적으로 적용하는데도 어떤 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성과인 당기순이익과 자산 부채 등의 규모가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의 적용이 회계정보의 최종사용자인 하나님께 올바른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회계원리들 중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성경적 원칙과 상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되는 이 시점에 국제회계기준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이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음직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이란 세상 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동시에 선량한 대리인으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과정과 정확한 회계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소유주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기업의 실체와는 다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다면, 소유주나 투자자들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된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 결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분식회계이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은 크게 부풀리고 부채나 손실은 작게 보이도록 하는 등의 회계장부 조작으로 통하여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위장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하락시킨다. 2003년에 발생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은 배타적인 한국 기업의 경영관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불투명한 회계문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³⁾ 시장의 신뢰, 특히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다른 분식회계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란 점을

3) 조준현, 박세현(2004), “성경의 기업윤리와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산업경제연구 제 17권 제 6호, p2590.

경영자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직에 바탕을 둔 정당한 경제활동은 시장경제에 적용할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 것이다. 정직한 경영의 객관적인 수단인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과정과 회계 보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장경제에 흐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이다. <그림 2>는 투명한 회계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3.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성경적 이해

앞에서 전제한 두 가지 전제를 받아들이는 크리스찬 기업은 구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되는 회계의 가정과 속성 등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여야 투명한 회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이야기를 보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기업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2장에서 제시된 두 가지 성경적 전제와 올바른 회계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질 투명한 경제사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최후 사명을 포함한 회계원리 개념도를 나타낸다.

3.1 기본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

3.1.1 기업실체의 가정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그 소유주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그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이다. 세 명의 종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다른 금액의 투자금을 맡기시고, 각 사업의 성과를 분리하여 보고를 받는다. 이들 세 사람은 그들의 경제활동에 통합하지도 않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필요 시 자산도 소유하고 채무도 지면서 능력껏 사업을 하였고 그 활동 내용을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 것이다.

3.1.2 계속기업의 가정

세 명의 종들은 각자 맡은 사업을 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인

은 마태복음 25장 21, 23절에서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찌어다.” 라고 하신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맡기신다는 것은 기업의 목적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존속시키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한 번 일시적으로 사업을 시도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계속 관리시키신다는 것이다.

3.1.3 기간별 보고

현대 기업회계에서는 임의로 회계기간을 정하여 보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에는 주인이 투자금을 맡긴 이후 다시 돌아온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업의 실적이 보고 된다. 이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랜 후’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회계보고에는 기간이 정해져야 하며 이 기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회계기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해진다면 회계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야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회계보고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우리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까지 편의상 임의의 회계기간을 정하여 회계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것이다. 회계기간을 임의의 일정기간으로 분할하여 준비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회계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등불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경영인이 도도록 되우는 것이므로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3.1.4 발생주의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대 기업회계에 적용되는 회계원리와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우선 되는 것은 종들이 사업결과에 관한 회계보고를 발표할 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어느 것을 사용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현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정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는 “보소서 내가 또 OO 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직접 현금이나 통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금주의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가 외상거래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잠언 22장 26절에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16장 1-13절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따라서 외상거래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인간사회가 살아오는 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이 되는 사회에는 비록 직접 언급은 없었을지라도 외상거래가 당연히 존재하였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래는 발생했지만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외상거래가 하나님께 회계보고를 드릴 때 포함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수익과 비용의 기록을 현금의 수취에 따라 기록하는 현금주의는 다루기에 편리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과 비용의 기록 시점을 발생시점으로 보는 발생주의가 훨씬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관한 판단은 2장에서 언급한 두 가지 성경적 전제 위에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보다 복잡한 것이지만 수입과 비용을 해당 회계연도에 기록하여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드릴 회계보고에도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3.2 질적 특성에 관한 성경적 이해

재무제표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의 네 가지 질적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네 가지 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3.2.1 이해가능성 (Understandability)

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경영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회계정보의 절대적 사용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주권 안에 있는 내외부 사용자 모두에게도 같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2.2 목적적합성 (Relevance)

두 번째 질적 특성은 정보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 예측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목적적합성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회계기간 동안 사업의 결과를 보고 받고 그에 맞는 평가를 하시며 칭찬과 질책을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21,23절에는 두 달란트 받았던 자나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정확히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크기로 평가를 받는다면 다섯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가 더 큰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와 정확하게 칭찬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회계보고서를 이용하여 기업의 실적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투자수익율(ROI)을 계산하면 두 사람이 모두 100% 투자수익율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금을 회수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재무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투자 목적에 따른 경영성과를 평가하심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3.2.3 신뢰성(Reliability)

세 번째 특성은 정보의 신뢰성이다. 오류나 편이가 없고 정직하게 충실하게 기록되어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 경영인들은 특히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사건들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률적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을 우선 잘 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한 편이(bias) 없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감가상각비의 추정과 같은 불확실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누락된 정보가 인하여 신뢰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 경영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시편 32장 10절, 빌립보서 1장 14절).

3.2.4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네 번째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이다. 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의 추세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차

례로 보고를 받는데 두 기업의 실적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2기 감사를 하신다면 제 1기의 사업실적과 비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가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2장에서 서술한 두 가지 전제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연히 강조되어야 한다.

3.3 제약요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

3.3.1 적시성 (Timeliness)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보고가 지체된다면 그 정보는 목적적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계시록 3장 3절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이야기에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보고를 받는데 미리 통지를 하고 오지 않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날에 나타나셔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청지기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그날의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를 성실하게 준비하여(누가복음 12장 40절) 회계정보의 절대적 사용자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3.2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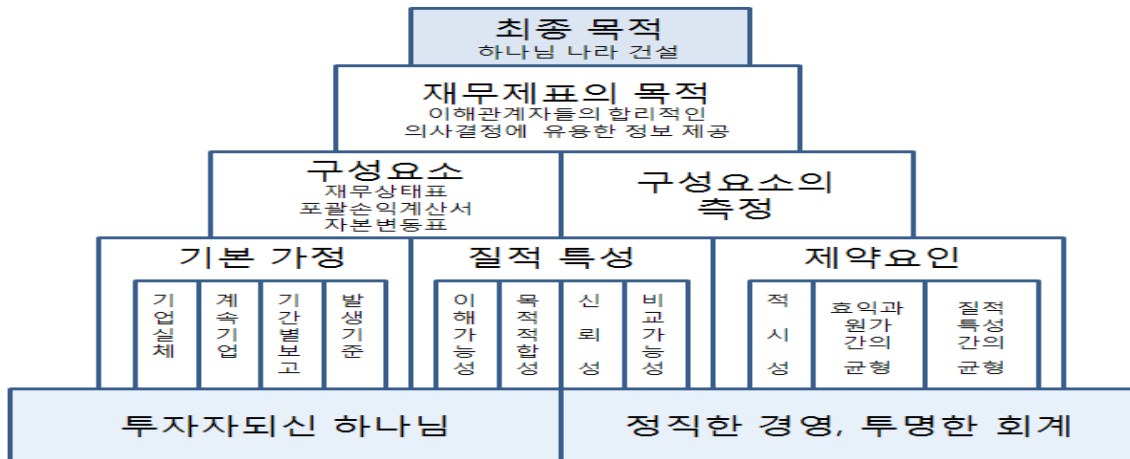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이다.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그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하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 이해 및 분석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과대 계상하거나 자본조달 가능성, 기업 이미지 제고, 합리적 의사결정 등 사회적 효익을 과소 계상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제약요인은 2장에 언급한 두 가지 성경적 전제와 상충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회계정보를 작성하시기를 원하시지(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하 18장 3절)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요인도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청지기인 경영인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골로새서 3장 23절) 정확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려는 자세를 잊지 않고, 지혜롭게 의롭게(잠언 1장 3절)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3.3 질적 특성 간의 균형

실무에서는 정보의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균형보다는 정직한 경영이 우선이므로 앞에서 논의한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처럼 경영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의도적으로 어떤 질적 특성을 다른 것보다 강조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약요인보다 질적 특성을 더 강조되어진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신명기 5장 32절, 여호수아 1장 7절, 역대하 34장 2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르게 행해야함을 말씀하고 계신다. 질적 특성간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가정과 특성 및 제약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회계정보의 절대적사용자 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밝혀주시는 회계원리는 IFRS 회계기준의 기본적인 가정과 특성 및 제약요인과 배치되지 않고 충실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계심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 서술한 두 가지 전제와 3장에서 검토한 가정과 특성들을 함께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회계원리의 기준에 대한 개념체계가 이루어진다.

<그림 3> 하나님 앞에서의 회계원리의 개념도



4. 국제회계기준과 한국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에 대한 성경적 고찰

한국의 상장기업들이 2011년부터 도입할 IFRS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K-GAAP과 여러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은 두 가지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고완석 외(2009), 삼일회계법인(2008), 유재규(2008), 이효익 외(2009), 한영회계법인(2008), Barry J. Epstein 외(2003), Cristopher Nobes 외(2002)).

<표 1> IFRS와 K-GAAP의 주요 차이점

항목	IFRS	K-GAAP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발생기준과 계속기업	기업실체, 계속기업 및 기간별 보고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이해가능성, 목적부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은 유용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
제약요건	적시성, 효익과 원가간의 균형, 질적 특성간의 균형	비용과 효익의 균형, 중요성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포괄이익의 개념을 자본유지의 개념으로 정의	포괄수익, 수익, 비용으로 명확히 명시
수익, 비용, 차익, 차손	광의의 수익, 비용 뿐 아니라 차익과 차손도 함께 손익계산서에 표시	포괄이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소인 차익과 차손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차익과 차손을 별도의 재무제

		표 요소로 봄
경영성과의 보고	포괄손익의 내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로 보고,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
자본변동표	소유주와 소수주주의 자본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소유주와 소수주주의 자본변동을 구분하지 않음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사용을 불허	후입선출법 사용 가능함
유무형자산 가치의 측정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	원가모형만 인정.
교환거래에 의한 유형자산	공정가치 우선, 측정 불가능 시 장부가액으로 표시	이종자산의 교환 시는 공정가치로, 동종자산의 교환 시는 장부가액으로 표시
재무상태의 표시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가치를 중시하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의 크기를 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

이 두 가지 회계기준을 같은 회계기간의 같은 기업에 동시에 적용해보면 기업에 따라 상당히 다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 <표 1>에 요약되었듯이 그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수익과 비용이 달라져 같은 기업의 같은 사업실적을 표시하는데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같은 실적인데도 다른 모습으로 보고되어진다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회계기준 중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부분에서 어떤 회계기준이 성경적으로 더욱 올바른지 검토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회계원리를 찾아보는 것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제약조건 및 가정에 관하여는 앞 장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자산, 부채, 자본 등에 관한 차이를 언급한다.

4.1 자산의 기록

IFRS가 도입되면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자산의 가치평가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K-GAAP에서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입각한 취득원가로 표시하여 왔는데 IFRS에서는 공정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 당시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자산의 원가를 잘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증가한다. 또한 다른 시점에서 구입한 자산의 원가를 그대로 합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된다. 즉 자산의 가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되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은행 변리라도 얻지 못한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질책하신다(마태복음 25장 26절). 하나님은 투자하셨을 때의 한 달란트와 오랜 후의 한 달란트가 분명히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 따라서 원가주의 보다는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재무상태표가 훨씬 주님의 관점에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1.1 재고자산의 기록

먼저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K-GAAP에서는 허용되던,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중 기업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은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납부세액을 우선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재고자산의 실물흐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제 재고자산의 흐름을 정확히 나타내는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상품의 수량과 종류가 많고 매입 및 매출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개별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가흐름의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재고자산의 가치가 실제 가치에 훨씬 가깝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중에서 택일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기독교경영인의 입장에서는 회계프로세스의 복잡성보다는 정확성에 더 초점을 두어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4.1.2 유형자산의 기록

유형자산의 평가는 가장 자산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K-GAAP에서는 자산의 구입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해 기록하고 그 가치의 하락은 감가상각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IFRS에서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교환거래에 의한 취득 시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재평가할 시에는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 등의 적정성을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도록 하여 좀 더 정확한 가치로 표시하고 있다.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재무상태를 더욱 정확히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계는 이 공정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평가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4.1.3 무형자산의 기록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는 유형자산의 평가와 유사하다. K-GAAP에서는 무형자산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는데, IFRS에서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가치의 평가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현실성 있는 가치로 측정 기록하게 되었다. K-GAAP에서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 외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이 초과 되지 않도록 규정되었는데, IFRS에서는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유한하다면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 없이 매년 손상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FRS의 규정을 적용하면 무형자산의 가치가 훨씬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요약하면 IFRS에서는 유무형자산 모두 공정가치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원가모형보다 공정가치를 우선하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가치가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

적이므로 가치의 재평가를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공정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 원리와도 일치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과거의 모습보다 현재의 모습을 더 중시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8절, 로마서 6장 19절, 디도서 3장 3절, 빌레몬 1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등에서 “전에는 ...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욱 귀중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이므로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K-GAAP 아래에서 작성되었던 대차대조표가 IFRS 아래에서는 현재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재무상태표로 바뀐 것은 현재의 모습을 더욱 중시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한다 하겠다. 다만 재평가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경영자가 하나님이 투자자 되심과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이 두 가지 전제 위에 지혜롭게 재평가해 나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다만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평가모형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기독교자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2 부채와 자본의 기록

K-GAAP이나 IFRS 모두 부채와 자본에 관한 기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채를 발행할 경우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차이가 나면 할인 또는 할증발행을 하게 되고 그 차액은 만기일까지 매 회계기간 중에 상각시켜나가게 된다.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은 유효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 구한다. 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해당 회계연도의 실제 이자가 계산되어 정확한 부채의 기록이 가능해진다. K-GAAP에서는 고정이자율과 유효시장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지만 IFRS에서는 유효시장이자율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좀 더 현재의 부채 규모가 현실성 있게 기록되어진다.

자본항목도 큰 변화가 없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소유주지분인 자본의 변동내역을 하나의 표로 표시하는 자본변동표가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함께 나타나 크리스찬 기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본과 더불어 모든 자본 항목의 변동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4.3 포괄손익계산서

기업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나 부수적인 경영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손익을 발생시킨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K-GAAP에서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변동액, 해외사업장의 외화재무제표환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각 기업이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익을 포함하여 하나의 표로 나타내므로 보다 정확한 손익을 알 수 있게 된다.

5. 크리스찬 경영인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자세와 사회적 책임

앞에서 국제회계기준의 개념과 주요 차이점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기존의 한국기업회계기준 보다 하나님의 관점에 더 부합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과 질적 특성의 균형 등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크리스찬 경영인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실제로 적용할 때 회계정보 기록자의 자세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정직한 경영을 통하여 경제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몇 가지 적용 자세를 여기에 제시한다.

첫째, 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2011년부터 상장회사부터 적용이 되지만 비상장회사라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준비를 서둘러 선제적으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사사기 1장 1절). <성경구절>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기 25장 2절, 신명기 28장 47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기업들의 도입과 적용 실패를 살펴보고 차후 도입하려는 수동적 자세를 버리자. 다른 기업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빌립보서 3장 17절, 디도서 2장 7절). 회계기준을 단순히 법적으로 해석하여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자. 타 회사의 사례가 생기기 전에 먼저 시도하고 기독교적으로 올바른 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자.

둘째, 효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을 오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신명기 28장 14절, 여호수아 23장 6절)을 오용하여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중간을 택하려는 자세를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목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선부른 균형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를 손상을 주어서는 옳지 않는 것이다.

셋째, 자산의 가치 평가 등에서 경영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지기적 자세로 정확한 회계를 위하여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직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언 11장 1절).” 한편 이로 인해 손실을 좀 보더라도 “끝까지 견고히(히브리서 3장 14절)” 감당해야 할 일이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여 부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경쟁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경영을 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의 성과를 하나님과 사회 앞에 올바르게 기록 보고하는 회계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빌립보서 2장 12절)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에베소서 6장 5절, 골로새서 3장 22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5. 맺음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려는 기독교경영인들은 경제적, 법적, 재량적 책임 외에도 윤리적 책임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직한 경영이 분식회계 사건과 금융 위기로 인하여 강조되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경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연구가 없었다. 본 논문은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계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회계원리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계원리를 추론하고 이를 올바르게 기업에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가지 전제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업의 투자자라는 것과 둘째는 정직한 경영과 정확한 회계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의 의무라는 것이다. 기독교경영인에게 재물을 맡기신 재물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십일조와 성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계정보의 절대적 이용자로 직접 참여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 외부 사용자 보다 더욱 중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평가하시는 최종사용자이시며 모든 내외부사용자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사용자이시다. 따라서 모든 회계정보는 그 분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기준으로 기록되고 평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정직한 경영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윤리가 필요하다.

이들 두 가지 성경적 전제 위에 회계원리와 기준들을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보면 기업 회계에 사용되어온 기본가정과 원칙들은 성경의 말씀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회계연도의 가정 등이 회계원리에 사용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치심과 일치한다. 현금주의 보다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정보의 기록도 훨씬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기록된 회계정보가 회계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되어지고 그 내용에 관하여 회계정보의 최종사용자인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도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IFRS가 K-GAAP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IFRS가 더욱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평가 부분은 공정시장가치로 기록하게 되어 현재의 재무상태를 좀 더 정확히 회계정보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 동시에 재평가된 자산과 부채 등은 다음 회기에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 항상 재무제표 작성 당시의 시점에 적합한 정확한 재무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경영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2장에서 서술한 두 가지 전제 위에 경영자의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 경영인들이 성경적 회계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투명한 회계프로세스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회계를 통하여 얻어진 회계정보는 회계의 목적성에 부합하여 재물의 주인이시며 100% 투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회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어 사회와 국가의 경제활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완석, 김종대, 임석식 (2009), 『IFRS 회계원리, 율곡출판사.

김휴섭 (2002), “성경 속의 회계사상,”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삼일회계법인 (2008), 『IFRS 핵심 해설』, 삼일회계법인.

유재규 (2008),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해설』, (주)영화조세통람.

이효익, 최관, 백원선 (2009), 『IFRS 회계원리』, 신영사.

장지인, 김완희, 김경호 (2002),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과 기업가치”, 한국경제연구원 pp.7-43.

조준현, 박세현 (2004), “성경의 기업윤리와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 방향”, 산업경제연구 17권 6호 ('04.12), pp.2585-2604.

진현(2002), “KWMA 산하 내의 선교단체의 재무시스템의 상관관계 및 간사들의 복지상황에 대한 연구 및 고찰”, 총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재덕 (1998), “누가복음과 한국 사회의 경제 윤리,” 『신약성서의 경제윤리』, 한국신약학회 편, 한들

최현동, 황호찬 (1998), “우리나라 교회 회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독교사상 474 , pp.87-111.

한영회계법인 (2008),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비교해설』, (주)영화조세통람.

황호찬 (1998), 『기독교 경영, 과연 가능한가』, 기독교 학문연구소.

Barry J. Epstein & Abbas ASli Mirza (2003),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ndards』, Wiley.

Carroll, A. B. (19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Society, 38(3), p.268-295.

Christopher Nobes & Robert Parker (2002), 『Comparative International Accounting』, Prentice Hall 7th ed.